

지방자치·종합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



손학규 후보의 부인 이윤영씨



김두관 후보의 부인 채정자씨



박준영 후보의 부인 최수복씨

폐막 열흘 앞둔 여수박람회

관람객 800만명 달성할까

어제까지 640만명…마무리 작업 순조

여수세계박람회 일일 관람객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총 관람객 수 800만명을 채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폐막식(12일)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참석하는 등 박람회 마무리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폐막일까지 800만명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5월 여수엑스포를 방문했던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를 통해 “참여정부가 유치하고 이명박 정부가 착실히 준비해 개최한 여수엑스포가 성공적인 박람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본격 휴가철과 방학이 시작된데다 오후권과 야간권 등 새로운 입장권 개발, 자자체 관람의 날 등 입장권 할인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입장객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또 정부와 자자체 차원의 유치 대

책을 마련해 관람객 수는 계속 늘었고, 지난달 30일에는 평일임에도 개장 이후 최고치인 27만5027명이 다녀갔다.

조직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폐막일까지 800만명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5월 여수엑스포를 방문했던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를 통해 “참여정부가 유치하고 이명박 정부가 착실히 준비해 개최한 여수엑스포가 성공적인 박람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휴가 기간(8~1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독서 등을 하며 지난 뒤 12일 열리는 여수엑스포 폐막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대선주자 안방마님 외조 경쟁도 뜨겁다

'선거운동원 0번'…호프타임·간담회·약자챙기기 등 '절인 행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선 경쟁이 뜨겁다. 5명의 후보자들은 각자 기자회견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본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며 민심잡기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후보들만큼이나 바쁜 이들이 있다. 배우자들이다. '선거 참모역 하라, 집안 일 행기라, 직장 다니라...' 안주인들 간 내·외조 경쟁 또한 뜨겁다. '선거 운동원 0번'을 자처한 이들은 특히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남편의 선거전을 든든히 보조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는 전국방방곡곡을 누비며 후보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빼곡히 한 일정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김 여사는 2일 ~ 3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했다. 이를간 참석하는 행사만도 '유쾌한 정숙씨와 함께 호프 타임',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문화예술·시민단체 대표 조

간간담회' 등 무려 14개에 달한다.

손학규 후보의 부인 이윤영 여사는 '튼튼 내조'로 남편을 돋고 있다. 약자인 이 여사에게 건강을 챙기는 '튼튼 내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빼곡한 지역 일정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지지자들을 챙기는 등 '절인 내조'를 하고 있다. 현장에선 손 후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고집해 알려주는 조언자 역할도 하는 등 1인 3역을 하고 있다.

김두관 후보의 배우자인 채정자 여사는 후보자에게 든든한 우군이다. 채 여사는 김 후보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성 등을 상당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열린 대선출마 선언식은 물론 경기도 오산시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등 김 후보를 밀착 동행하면서 지원사격을 해주고 있다. 채 여사는 현재 김 지사와 함께 제주 일정을 소화 중이다.

박준영 후보의 부인인 최수복 여사는 '독자 행보'로 남편이 놓치기 쉬운 바닥 민심까지 쓸어 닦고 있다. 최 여사는 이날 현재까지 박 후보가 돌아보지 못한 지역을 방문, 지지자들을 꼼꼼히 행하고 있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여성·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챙기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부인인 최혜경 여사는 경우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정 후보만 활동할 뿐, (사모님의 경우) 별도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01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손·김·정·박... 전국 누비며 민심잡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선 진출자 5명은 2일 현장 방문과 포럼 등을 통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민심잡기에 박차를 가했다.

문 후보는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OK) 경찰 투어에 나섰다.

그는 경북 안동 동암사와 천주교 안동성당을 찾아 종교계 인사를 만난 뒤 대구시당을 방문,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경북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아 '한일관계 구상'을 발표했다.

손학규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식에 참석,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혁신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이어 서민금융보호 정책간담회에 참석 ▲통합도산법 ▲공정대 출법 ▲불법 사금융 근절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강정 평화 대행진'에 참석한 뒤 제주지역 호남항 우회·제주 오일시장 등을 방문, 지역 민심을 살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추진해서 고통을 겪게 한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고문은 이날도 라디오와 방송에 출연하며 '정세균 알리기'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전 팽개스트 방송인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해 2030세대인 젊은층 표심을 다지고 '준비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박준영 전 남도지사는 민주당의 첫 밭이자 자신의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라디오와 방송인터뷰에 출연했다. 박 후보는 이어 화순군 하나님 문화센터에서 열린 '자비용 친환경 농업 실천대회'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01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檢-민주, 박지원 '인정신문' 두고 힘겨루기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조사 때 진행된 '인정신문'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평행한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두 시간 동안 인생연혁만 물어봤다"고 비판했다.

본 조사에 앞서 이름·나이·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를 지나치게 길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인정신문을 했을 뿐이며 "인정신문만 두 시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엄밀한 의미의 인정신문은 인적사항만 묻는 것이지만 때로는 인정신문이 본 조사에 앞서 기초조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도가 지나쳤고 다른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이 인정신문으로 시간을 끌고 나서 나중에 조사가 부족했다는 광계로 박 원내대표를 또 소환해 정치적 굴욕을 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오늘의 여수엑스포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들이 폭염으로 탈진하는 등 박람회장이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폐막을 10여 일 앞두고 관람객이 폭주해 인기 전시관은 께꽝 아래에서 1~2시간 가량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더위에 쓰러지는 관람객이 늘고 있다.

박람회 조직자는 2일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10명 안팎의 관람객이 더위에 지쳐 박람회장 내 중앙의료센터를 찾아 수액처방 등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오후 7시에 시작한 아이돌 스타의 K-POP 공연을 보기

위해 폭염이 절정에 달한 오후 2시께부터 공연장인 특설무대 입구에서 장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고등학생 관객 10여명이 탈진해 의료센터에서 수액처방 등을 받았다.

같은 장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40여명의 학생들도 더위에 지쳐 주변 침대를 거쳐 의료센터에 일시 들려 휴식을 취한 뒤 돌아가기도 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박람회장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천막과 분무(噴霧) 시설 등 침대가 많고 조직위가 얼음 주머니와 생수를 나눠주는 등 세심히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m@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 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민주의 충청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천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1413㎡(오피스텔 48세대 건축 가능)

㎡당 546,000원

아파트/빌라 박미린 팀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균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앞(지하) 호프, 분식 60평, 원룸형빌라(산수동, 백운동) 5칸, 계평동 E마트 1층 1칸
대출 + 보증금 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불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여 핵심

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이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 지역 : 광주군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평~300평, 월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청고동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개설 20개 대출 4292천 대매가 89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대매가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신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평 30m 도로지, 농지전용 원로,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주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광장 청고동도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광주군 흥룡면 청룡리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구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49.co.kr

가은 부동산

신창동 빌딩매매

- 대지 : 630평

- 연건평 : 460평

- 보증금 3억 5천만원/월 1600만원

- 매매가 :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건물매매>

- 대지 : 200평

- 연면적 : 150평